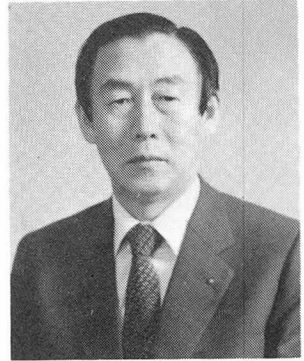


창립12주년에 즈음하여



李大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 협회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협회의 발전에 공헌해온 모범직원 여러분과 10년 근속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이래 5번째 맞이하는 창립12주년을 맞이하여 본인의 감회가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처음 부임할 때와 오늘의 협회를 비교하여 볼때 실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내 유일의 민간방재기간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12년동안 특수건물의 방재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과 화재의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을 취급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어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요율을 인하하는 등 보험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재시험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매년 실시하는 대형산업체에 대한 위험조사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산업안전조사 등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기술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협회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모든 사회단체가 생일을 맞이하면 그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더 노력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사람의 행복이란 평범한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므로 직원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더 협회와 사회발전에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화협이 12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역사가 일천하므로 완전한 성인이 되려면 20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협회는 다른 단체에서 20년이 걸려 이룩한 일들을 불과 10여년만에 이처럼 괄목할 만큼 이룩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방재기술을 선진기술수준으로 끌어 올려 방재보국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준공될 방재시험소 설립을 계기로 지금보다 한층 차원높은 기술을 연마하여 우리나라의 방재기능을 선진화 하는데 다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재난없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직원 여러분들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화합단결하여 협회의 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1985. 5. 15

이사장李大鎔